

LNG, 아시아 수입카르텔 결성한다!

일본-인디아, 수입국협의체 결성 합의 ... 한국·싱가폴에 동참 요구

일본과 인디아가 천연가스 수입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동참을 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3년 9월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과 베라파 물리 인디아 석유가스장관이 9월9일 도쿄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포괄하는 다자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인디아의 회동 후 성명서에서 “아시아의 LNG 가격이 북미와 유럽보다 비싸다”면서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LNG 가격이 북미에 비해 6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셰일가스(Shale Gas)가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아시아에 판매되는 LNG는 대부분 원유가격과 연동돼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LNG 가스관 공급 물량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과 인디아는 9월10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가스 생산·소비국 포럼에 참석하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동참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가스 생산국의 견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3년 7월 가스 수출국 포럼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 연계 장기계약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제 에너지 컨설팅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cKenzie)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 LNG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과 불확실성은 아시아 LNG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10>